

## A case of recurrent paragangliomas after MIBG therapy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한송이

Pheochromocytoma is a rare tumor that usually develops from one of the body's two adrenal glands, located above each kidney in the back of the upper abdomen. Paragangliomas was rare extra-adrenal catecholamine producing tumors that are found along the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chain, metastatic malignant paraganglioma carries a 5-year survival of 20 to 45%, however histologically,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benign and malignant paragangliomas with the WHO definition of a malignant paragangliomas being one with metastasis. Our patient, a 66-year-old woman diagnosed extra-adrenal pheochromocytoma in Rt. retroperitoneum (paraganglioma) and have MIBG treatment 10 years ago. However, the catecholamines level in the urine is increasing and mass detected in right renal hilum and perirenal space.



## 형제에서 발생한 갑상선 중독성 주기성 마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조우희, 유원상, 김도희, 정현경, 김희진

갑상선 중독성 주기성 마비는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근증상의 하나로,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흔하고 젊은 남자에서 호발한다. 여러 가지 유발인자에 의해서 대칭적으로 근위 골격근의 이완성 또는 비반사성 마비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마비 당시 저칼륨혈증을 자주 동반한다. 이러한 갑상선 중독성 주기성 마비 환자에서 가족력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국내에서 이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저자들은 형제에서 발생한 갑상선 중독성 주기성 마비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46세 남자 환자가 한 달 전부터 자각된 간헐적인 양하지 근력 저하를 주소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최근 3개월 동안 7 kg의 체중 감소가 있었으며, 내원 3일 전 오징어를 먹고 수차례 설사를 했다고 하였다. 내원 전날 별래에 물려 가려움증과 발진 증상을 보인 후 내원 당일 새벽에 일어 설 수 없을 정도의 하지 근력 약화를 보여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칼륨 2.2 mEq/L, T3 180 ng/dL, free T4 1.74 ng/dL, TSH 0.01 µIU/mL로 저칼륨혈증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었고 항갑상선 항체검사서 TSH receptor Ab와 Microsome Ab가 양성이었다. 칼륨 정주 후 하지 근력은 회복되었다. 환자는 항갑상선제 복용하면서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이 환자의 진단 1년 6개월 후 동생인 43세 남자 환자가 내원 3주 전부터 간헐적인 양하지 근력 저하가 있다가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응급실 방문에서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저칼륨혈증과 T3 349 ng/dL, free T4 2.14 ng/dL, TSH 0.01 µIU/mL의 갑상선 기능항진증 소견을 보였다. 본 환자도 TSH receptor Ab와 Microsome Ab 양성 소견을 보였다. 이후 하지 마비 증상으로 2차례 더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현재는 항갑상선제 복용하며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